



느려도 단단하게, '자기 속도'를 찾아가는 사회

느린 학습자 지원, 수치로 본 현실과 과제

본 호에서는 '느린 학습자'로 불리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. 2025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실시한 『대전경계선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』 결과 중 양육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학교 조력 인식 및 필요도, 선별·진단 체계에 대한 선호 방식, 그리고 가족·복지·제도적 측면의 구체적인 지원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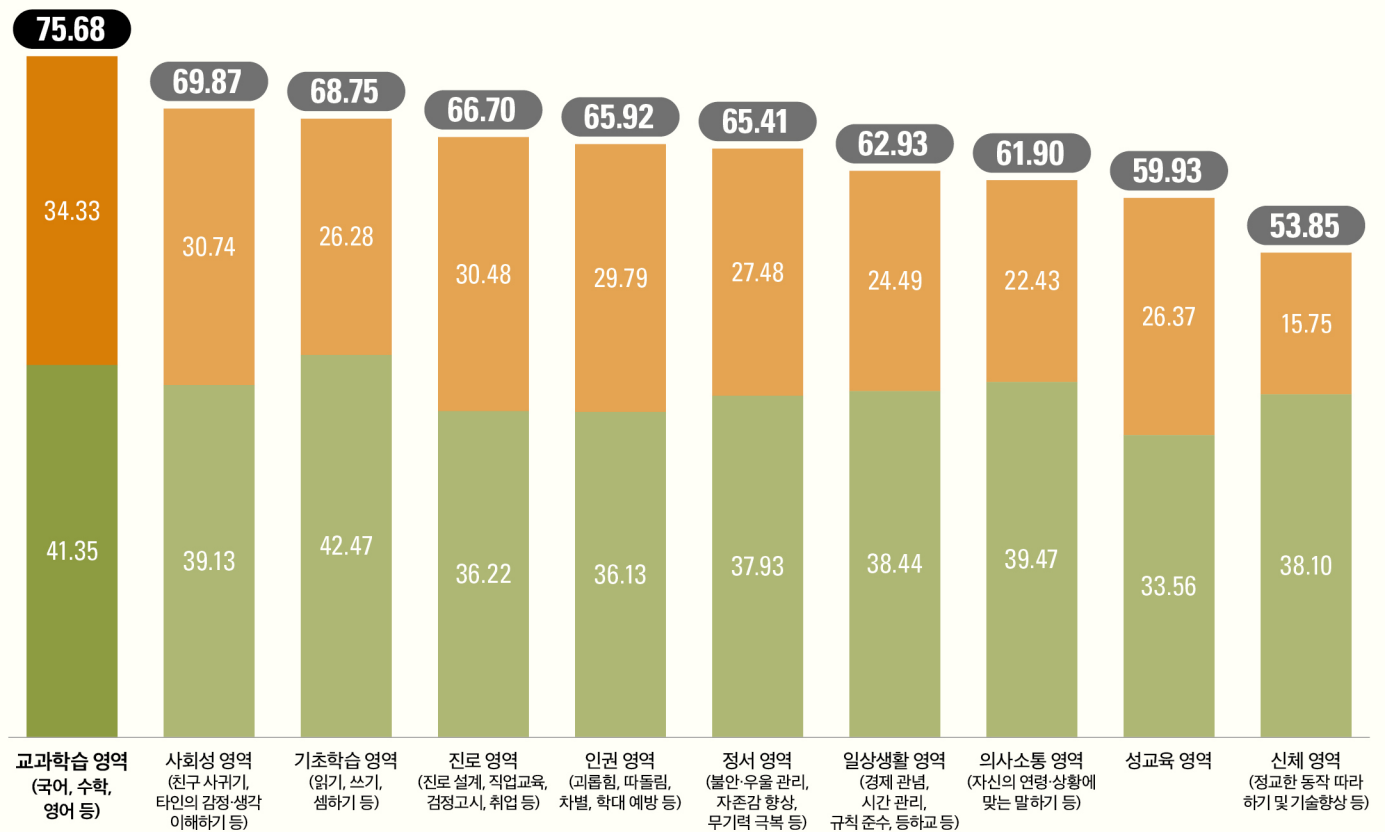
*본 웹진에서는 성인지 관점에서 '학부모'를 '양육자'로, '경계선지능 자녀'를 '느린 학습자'로 표현했다.

느린 학습자 학교생활, 교과학습·사회성 영역에서 큰 어려움 우려

양육자들은 느린 학습자가 학교생활 가운데 특히 교과학습 영역(국어, 수학, 영어 등)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. 해당 응답은 75.68%로 모든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. 이어 사회성(친구 사귀기, 타인의 감정·생각 이해하기 등)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69.87%로 나타났으며, 기초학습(읽기, 쓰기, 셈하기 등)이 68.75%로 그 뒤를 이었다. 이외에도 진로(66.70%), 인권(65.92%), 정서(65.41%), 일상생활(62.93%), 의사소통(61.90%), 성교육(59.93%), 신체(53.85%) 순으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.

느린 학습자의 학교생활 어려움 영역

■ 많다 ■ 매우 많다 단위: %



· 양육자 n=1,168, 느린 학습자 자녀 있음 n=79, 느린 학습자 자녀 없음 n=1,021, 느린 학습자 자녀 여부 모르겠음 n=68

· 제시된 평균 점수는 5점 척도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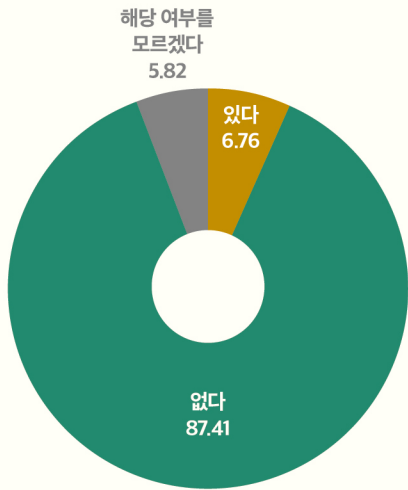
· 출처: 조영희 외(2025), 『대전경계선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』, 대전교육과학연구원

느린 학습자 비율 6.76%, 인식 경로는 '매체'가 절반 차지

양육자의 느린 학습자 자녀 유무를 살펴보면, '있다'는 응답이 6.76%로 나타난 가운데 서구(30.38%)와 유성구(27.85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, 동구(20.25%), 중구(13.92%), 대덕구(7.59%) 순이다. 한편 자녀가 '없다'는 응답은 87.41%, '모르겠다'는 5.82%였다. 또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 경로는 인터넷, 서적, 방송 등 '매체'를 통한 경우가 49.49%로 가장 많았으며, 주변 사람들(16.35%), 공문(14.13%), 직·간접적인 경험(10.96%) 등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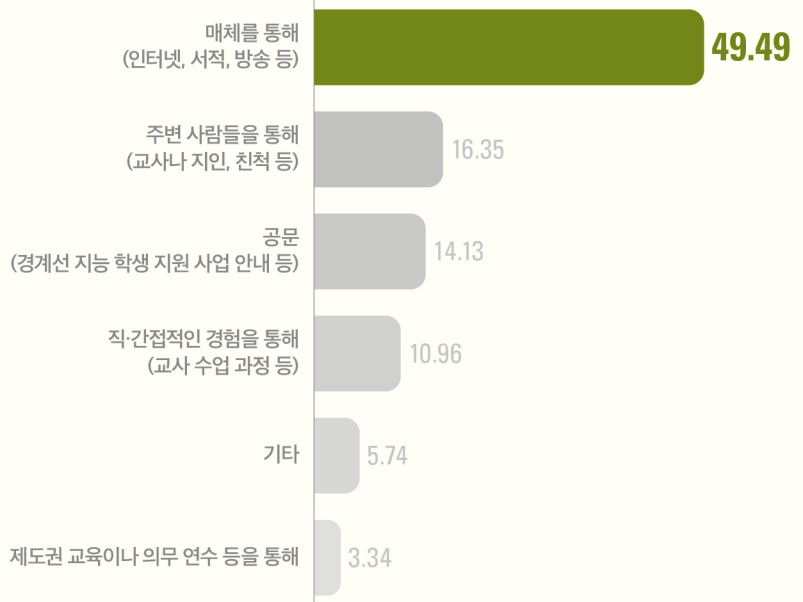
느린 학습자 자녀 여부

단위: %



느린 학습자 인식 경로

단위: %



·양육자 n=1,168, 느린 학습자 자녀 있음 n=79, 느린 학습자 자녀 없음 n=1,021, 느린 학습자 자녀 여부 모르겠음 n=68
 ·인식 경로에서 기타 응답은 67건으로 주요 의견은 '의학적 검사 결과(폴베터리 및 엑슬러 등)', '직업상', 학교를 통하여(선생님, 진학 전 상담 하이클래스 등), 센터 및 병원 이용, '이 설문조사를 통하여', '대학 전공(교직 이수, 과목 수강 등)' 등이 포함됨
 출처: 조영희 외(2025), 『대전경계선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』, 대전교육과학연구원

양육자 45.63%, '전수 선별검사' 선호

느린 학습자 선별 및 진단 방법에 대해 양육자들은 '모든 학생 대상 선별검사 후 양육자 1차 선별과 담임교사 관찰 결과를 종합해 교육청·전문기관과 연계 진단하는 방식'(26.11%)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 '양육자 1차 선별→담임교사 관찰→기관 연계 진단'이 15.50%, '지자체 주도로 보건소, 전문병원 등에서 발달검사→선별·진단'이 14.21%, '모든 학생 선별→담임교사 선택적 1차 선별→기관 연계 진단'은 12.93%로 뒤를 이었다, 특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은 45.63%¹⁾에 달했으며, 학교와 가정, 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선별·진단 체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.

느린 학습자 선별 및 진단 선호 방법(상위 5개)

단위: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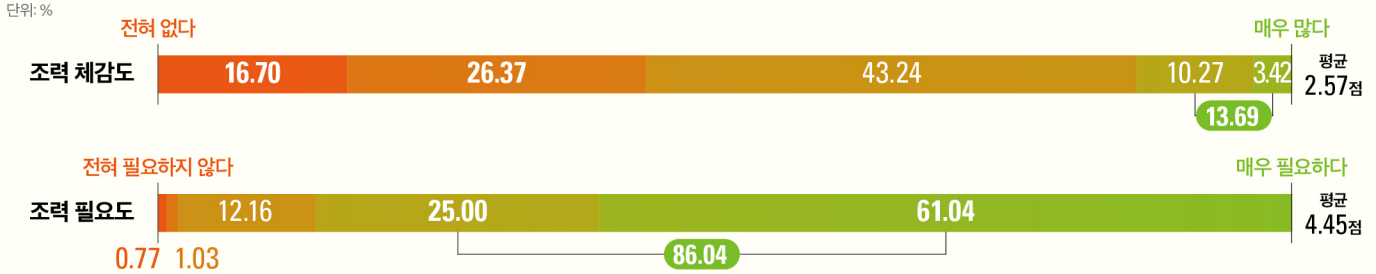


·양육자 n=1,168, 느린 학습자 자녀 있음 n=79, 느린 학습자 자녀 없음 n=1,021, 느린 학습자 자녀 여부 모르겠음 n=68
 ·선별과 진단 방법 선호는 상위 5위까지만 제시함
 출처: 조영희 외(2025), 『대전경계선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』, 대전교육과학연구원
 1) 상위 5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'모든 학생 선별검사 후 교육청·전문기관 연계 진단'(6.59%)까지 포함할 경우, 전수 선별검사를 전제로 한 응답은 총 45.63%로 나타남

학교 지원, 체감은 낮고 필요는 높아... '체감' 13% vs '필요' 86%

양육자들이 느끼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교의 지원 필요성과 실제 인식하는 지원 수준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느린 학습자를 위해 학교의 '조력이 필요하다'는 응답은 86.04%로 높게 나타난 반면, 실제 학교 조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. 학교의 '조력이 많다'는 응답은 13.69%에 그쳤으나, 조력이 '전혀 없다'(16.70%)와 '없다'(26.37%)는 응답자의 43.07%를 차지한다.

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교 조력 수준 및 필요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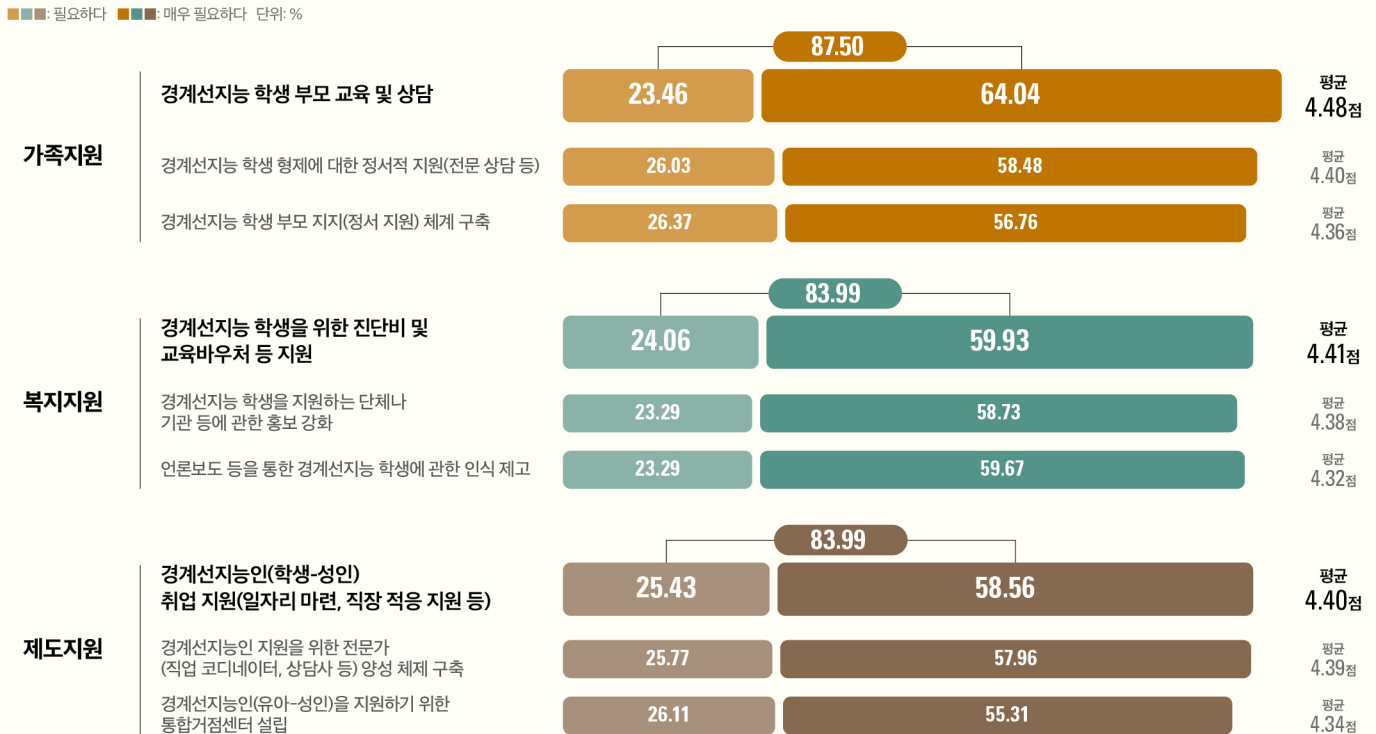


·양육자 n=1,168, 느린 학습자 자녀 있음 n=79, 느린 학습자 자녀 없음 n=1,021, 느린 학습자 자녀 여부 모르겠음 n=68
 ·출처: 조영희 외(2025), 『대전경계선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』, 대전교육과학연구원

양육자가 원하는 지원은? '부모 교육·상담·'진단비·교육바우처'·취업 지원' 순

느린 학습자 가족지원과 관련해 양육자들은 '부모 교육 및 상담'(87.50%)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, 형제 정서 지원(84.51%)과 부모 지지 체계 구축(83.13%) 역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. 복지 영역에서는 '진단비 및 교육바우처 등 경제적 지원'(83.99%)의 필요 비율이 가장 높고, '언론보도 등을 통한 인식 제고'(82.96%), '지원 단체 및 기관 홍보 강화'(82.02%)가 뒤를 이었다. 제도적 측면에서는 '일자리 마련, 직장 적응 등 취업 지원'(83.99%)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느린 학습자를 위한 영역별 지원 방안(상위 3개)



·양육자 n=1,168, 느린 학습자 자녀 있음 n=79, 느린 학습자 자녀 없음 n=1,021, 느린 학습자 자녀 여부 모르겠음 n=68
 ·상위 3위까지만 제시함
 ·출처: 조영희 외(2025), 『대전경계선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』, 대전교육과학연구원